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캐터필라 휠로더!!!

현장에서 입증된 최고의 성능!

강력한 파워, 부드러운 변속, 빠른 작업속도!!

"G Series II"

최고의 생산성과 편안함을 느껴보십시오!!!



캐터필라!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 가치는 항상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식회사 예인
www.haein.com

본사: (02)3498-4500 또는 전국 각 지점 / 고객센터 080-022-5775
천안고객지원센터 041) 559-1500 평택창고 031)667-2066/9 양산창고 055)385-9668
서울영업본부 02)3498-4541/8 경기북부영업소 031)826-0966/8 영등포영업소 02)2636-2891/3 남부영업소 031)667-2062/3
부산영업본부 051)517-7060 /935-0500 전주영업소 055)755-9669 포항영업소 054)262-7551/2 인천지점 032)761-0564/6
동해지점 033)522-5211 광주지점 062)526-3895/7 제천지점 043)643-3307/644-3307 전주지점 063)245-1777/8 대구지점 053)521-8072/5 대전지점 042)531-6518/9

헤인

www.haein.com

| 2004 | SUMMER



치고 난 농약병에 남은 한방울이 아까워
그렇게 눈물에 행구어 뿌려댄다.

자식이 먹다 남은 찬밥덩이 아까워
그렇게 물에 말아 훌훌 넘기셨던 당신.

자식같은 어린모 행여누가 값을세라
한낮 띄양벌 아래 몇 번이고 행구어 뿌려댄다.

그 남은 한방울이 아까워 그렇게 당신은...



글·사진 함영식

Contents 2004 Summer

27> 26> 24> 22> 20> 18> 16> 12> 08> 06> 04>

비즈니스 심리학

독차나눔터

헤인 뉴스

협력사 탐방

특별한 인연

헤인 속으로 - 최고의 엔진

현장 리포트

소식통청보통 - 업계 동향

즐거움 여정

브라보! 마이 라이프

세상돋보기



(주)헤인 부산렌탈스토어 개설 기념식에서 (주)헤인 회장님/사장님 이하 내외빈들
*표지 이야기는 p16~17에 실렸습니다.



당신도 혹시 **싸이**의 노예?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싸이'를 모르면 간첩이다. 이 말을 해놓고 나니 재미있는 광경이 하나 떠오른다. 이 글을 읽던 어느 40대 직장인이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싸이? 그 정도 가수는 나도 알지, 내가 얼마나 신세대인데... 하하하."라고 말하며 뿌듯해하는 광경 말이다. 그 분께는 대단히 미안한 일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싸이'란 가수 '싸이'가 아니라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말하는 것이다.

글·김광일(자유기고가) · 일러스트_이경국



싸이와 비슷한 포맷의 개인 미니홈피는 사실 이전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기존의 그것들은 그저 친한 몇몇 사람들과의 교류와 자신의 일기나 자료를 저장하는 수준의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는 그 기능을 넘어서 대한민국 2,30대의 국민정부 역할까지 담당하며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 중이다. 인터넷을 즐기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하루 일과에서 적잖은 시간을 자신의 홈피 관리와 타인의 홈피 방문에 할애하고 있다. 심지어는 싸이에 중독되어 하루라도 '싸이질'을 하지 않으면 손이 떨린다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싸이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엄청나다. 최근 연예인들의 스캔들은 대부분 강남의 나이트클럽이 아니라 싸이를 통해 감지된다. 이 시대의 젊은 연예·스포츠 스타들은 대부분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보유하고 있다. 팬들은 미니홈피를 통해 우리와 다른 없는 그들의 사생활에 친근해하며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많은 것들을 공유하려 한다. 스타들 또한 그것을 즐기며 그곳에서 팬들과의 실시간 직접 교류를 하기도 한다. 싸이는 스타와 팬과의 간극만 좁힌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스타로 만들기도 한다. 실제 다수의 홈피 이용자들은 자신의 사진 혹은 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홍보하여 온라인에서 자신의 팬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의 반응을 즐긴다. 이것이 바로 젊은이

들이 싸이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싸이의 기능은 그뿐 만이 아니다. 바로 '사람찾기' 검색을 통해 연락이 끊긴 지인들을 찾을 수 있다는 엄청난 효능은 이 땅의 젊은이들을 몽땅 '싸이월드'에 접속시켰다. 과거 '아이러브스쿨'이라는 사이트가 잊혀진 동창들을 찾아서 모아주며 주말의 술집을 호황으로 이끌었다면 싸이월드는 그 역할을 동창에만 국한시키지 않는다. 이름 석자와 나이만 알면 전국의 싸이월드 가입자들은 몇 분 안에 원하는 누구든지 찾아낼 수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핵가족화와 개인주의의 범람, 인터넷의 발달로 외로워진 현대인들은 사람들간의 정에 목말라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나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를 알리고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느끼며 외로움을 달린다. 짝사랑하는 사람이나 첫사랑의 행적을 엿보는 데 활용하기도 하는 등 현대인들의 스토킹 욕구를 해소하는데도 미니홈피는 아주 그만인 것이다. 나는 이런 전 국민적인 싸이 중독현상을 좋다 나쁘다로 규정 짓기보다는 어차피 하나의 문화현상이라면 몇 가지만 경계하며 싸이를 제대로 즐기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싸이를 하다보면 자신의 홈피를 꾸기기 위해 매일 새로운 글을 쓰고 사진을 찍어 업데이트하고, 다른 사람들의 리플에 일

일이 대답해주는 데만 많은 시간이 흐른다. 다른 사람들의 홈피에 가서 일일이 흔적을 남기는 데 드는 시간은 또 얼마인가. 자주 만나기 힘든 사람들과의 교류를 위해 유익하게 이용되어야 할 공간이 오히려 그 사람들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만든다면 본말이 전도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수한 핸드폰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에 노출되어 누군가의 미니홈피에 버젓이 오르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의 홈피에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올라와 있는 나의 사진이 어떠한 피해를 주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 이에 관련한 법규 제정도 시급한 상태다. 싸이, 그 작은 공간의 허상에서 우리는 분명히 벗어나야 한다. 그 곳에서의 인기가 내 실제 인기도 아니거니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현실 감각을 잃고 미는 누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싸이의 미니홈피는 행복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지, 거꾸로 우리가 싸이의 노예가 되어 자신의 발전을 도외시하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현명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CYWORLD



빙판을 녹이는 당찬 여심(女心)

국내 최초 여성 아이스하키 심판 이태리씨

충알처럼 날아가는 펙, 숨을 멎게 하는 바디 체크,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난투극.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이스하키에 대한 이미지는 남자들의 전유물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격렬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빙판을 녹일 듯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곳에 한 명의 여성이 발을 내딛었다.

글 · 사진 이형근



국내 1호 여성 아이스하키 심판인 이태리씨는, 피겨 스케이팅으로 빙판과 인연을 맺었다. 그녀가 날이 뭉툰한 스케이트를 신게 된 것은 선수 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아이스하키 관계자들 덕분이었다고 한다. 같은 아이스링크를 쓰던 터라 평소 안면이 있던 관계자들이 아이스하키 심판으로의 방향 전환을 권유했고 마침 신입 심판 세미나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본 이태리씨는 국내 최초로 여성 아이스하키 심판이 되는 길에 들어섰다.

이제 막 1년 차가 된, 아이스하키 심판 이태리씨는 자신을 어떻게 단련시켜 왔을까.

“아무래도 피겨 스케이팅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운동이라서 무엇보다도 체력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피겨 스케이팅은 삼사분 안에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하지만 아이스하키는 10분씩 3쿼터 어드를 진행하잖아요. 힘든 건 똑같지만 체력을 분배하는 건 정반대거든요. 게다가 아이스하키 경험

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으로 임명됐을 때부터 아마 추어 팀에 가입해서 실전 경험도 쌓기 시작했어요.” 현재는 초등학교 팀간의 시합에서 심판을 맡고 있는데, 중학생 경기만 해도 경기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집에서 반대는 하지 않으셨지만 위험한 운동이기 때문에 걱정은 좀 하셨어요. 친구들로부터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하지만 팽팽한 긴장감과 박진감이 넘치는 빙판 한 가운데에 서서 심판 역할을 해내는 일이 무엇보다 흥미진진하다고 자랑한다. 그런데, 다소 아쉬운 점 정도 언뜻 스친다.

“심판은 게임에 빠져들면 안 되거든요. 선수들 플레이에 몰입하게 되면 제가 잡아내야 할 순간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죠. 아직은 경험이 적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흥분하고 아쉬워할 때가 있어요. 하루 빨리 고쳐야겠죠.”

아직까지 노련미보다는 풋풋함이 더 많이 묻어나는 모습이었지만 마음 속에서 그리고 있는 앞으로의 모습은 절대 소박하지 않았다.

“국내 최초의 국제 심판이 되고 싶어요. 지금은 아이스하키가 비인기 종목이지만 제가 국제 심판이 되면 그게 이슈가 되고 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아이스하키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협회에서도 제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7월 2일, 이태리씨는 핀란드에서 열리는 ‘국제여자 아이스하키캠프’에 참가한다고 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캠프로, 전세계에서 활동 중인 여성 아이스하키 심판들이 모여서 함께 트레이닝을 실시하는 것. 단 하루의 자유시간도 없는 빡빡한 일정에 고된 훈련이 예정되어 있지만 벌써부터 설레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다.

“여자라서 차별을 받은 적은 없어요. 오히려 다들 저한테 잘 해주시죠. 하지만, 앞서도 말씀 드렸듯

이 체력적인 면이나 순수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국내 최초의 여자 심판이라는 점이 많이 부담스러워요.”

이번 캠프가 기다려지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달린 차원 높은 수준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도 그만큼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한다.

올해 여름에 개최되는 심판 세미나에는 현직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선수 중 일곱 명이나 참가 신청을 했다면, “선배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엄살을 부리다가도, “항상 꾸준한 자기 관리를 통해 모두 훌륭한 심판이 되길 바란다”는 선배다운 바람을 내비친 이태리씨.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건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는 김구 선생의 말씀처럼 그녀가 올곧은 첫걸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ICE HOCKEY



한여름 시원한 여행 이야기

바닷바람, 서늘한 동굴, 대숲향

무더운 여름이 소리도 없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장마가 끝나는 7월 중순부터 3주 동안 40도를 육박할 만큼 살인적인 무더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비지땀을 흘릴 정도의 무더위와 한 판 승부를 벌여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에서 여름휴가를 보내야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까. 산, 계곡, 바다 등 어디로든 훌쩍 떠나 무더위를 식힐 수만 있다면 좋겠다.

글 · 사진 이태훈(여행전문기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그리는 '안면도'

'꿈의 섬'이라고 불리는 안면도는 우리나라에서 순우리말의 지명이 많은 곳 중 하나다. 해수욕장 이름만 봐도 샛별, 바람아래, 두여기, 두여, 밧개, 샛별, 꽃지 등 우리말 해수욕장이 즐비하고, 드르니항, 쌀썩은여, 검은여, 섬옷섬, 참새골, 노루땅 등의 섬과 마을 이름에서도 정감 어린 안면도의 순수성이 묻어난다.

서해안에서 가장 물이 맑고 깨끗한 해수욕장은 모두 안면도에 몰려 있다. 77번 국도를 따라 안면교를 지나 오른쪽으로 우회전 하면 해안관광도로가 나온다. 백사장 해수욕장에서 시작된 해안도로의 종점은 안면도가 낳은 최고의 해수욕장인 '꽃지'다. 이곳은 서해안 낙조 3경 중 하나로 꼽힐 만큼 환상적인 석양을 보여줘 계절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으로 북적거린다.

안면도 해수욕장 중에서 대중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모래가 가장 부드러운 곳이 바로 바람아래 해수욕장이다. 이름에서 범상함이 묻어나는 바람아래는 서해 같은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고운 모래와 맑은 물, 그리고 갈대숲이 아주 인상적인 곳이다. 골과 골 사이로 형성되어 있는 백사장이 매우 이채롭다. 용이 승천할 때 큰 바람과 조수 변

화를 일으켜 모래 독이 형성됐다는 이곳은 바람여신이 감싸주는 평화롭고 빼어난 경치를 자랑한다. 또한 음이온이 가득한 '안면도 자연휴양림'(www.anmyonhuyang.go.kr)은 소나무 천연림이 울창하게 우거져 산림욕장으로 최고다. 92년에 문을 연 휴양림은 숙박·교육·체육시설, 수목원, 산림전시관 등의 다양한 휴양시설이 마련돼 있다. 산자락에 일렬로 배치한 숲속의 집은 모두 18동의 콘도형이지만 식기와 조리기구는 없고 가스레인지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세면도구와 취사도구를 준비해야 한다.

죽향(竹鄕)의 도시, 전남 담양

집이 있는 만큼 대나무 밭이 있을 정도로 도시 전체가 거대한 대숲을 이루고 집집마다 대가 있는 담양은, 대나무의 상징인 지조와 절개로 가득 차 곧고 단아한 인품을 간직한 면양정 송순, 송강 정철, 소쇄공 양산보 등 명망 있는 선비를 배출한 도시이기도 하다. 담양 여행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대나무와 신록이 우거진 숲에서 산림욕을 즐기는 것이다. 영화 흑수선이 촬영된 대나무골 테마공원과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숲이 우거진 메타세콰이어 길, 소담스럽고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소쇄





원, 푸른 하늘빛을 가득 담은 담양호, 담양 시내를 한 눈에 내려다보며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금성 산성 등 담양에는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자연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용광로 같이 뜨겁게 달아오른 고속도로를 빠져나 오면 바람에 대나무들이 몸을 흔들며 낮선 여행자들을 맞이한다. 담양에서 어딜 가도 좋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대나무골 테마공원'을 빼놓지 않고 찾는다. 3만여 평의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대나무공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대나무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봄이면 대밭에 땅을 뚫고 치솟는 죽순이 장관을 이루며, 텃새들이 찾아와 알을 품는 서식지이기도 하다. 대숲에는 야생 죽로차 나무가 자생하고 있어 차의 멋과 맛을 느껴 볼 수도 있다.

대나무밭에서 죽림욕을 즐겼다면 담양에서 또다른 산림욕을 즐겨보자. 담양에서 순창 경계까지 24번과 29번 국도 양옆에는 50미터가 넘는 아름다운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심어져 있어 낭만이 물씬 풍겨난다. 담양의 메타세쿼이아 길은 3km 이상이나 돼 드

라이브나 산책 코스로 안성맞춤이다. 무성한 잎들이 하늘을 가려 마치 산중 숲 터널을 연상시키는 이 길은 전국에서 가장 멋지고 이색적인 길이다.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시원한 무더위를 달랜다면 신선이 따로 없을 것이다.

잠자리는 농원형 숙박이 좋을 것이다. 담양군 용면 용연리에 자리한 '가마골 관광농원' (www.gamagoul.co.kr/061-381-9999)은 깊은 계곡을 끼고 있으며 기암괴석이 우거진 숲 주변에 위치하는데, 복잡한 도회지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할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대소형 황토방과 콘도형 민박시설 등이 있어 잠자리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족구장, 배구장, 삼림욕장, 등산로, 산책로가 구비되어 있다.

위대한 자연 앞에 넋 잃고 차가운 기운에 온몸이 서늘

자연이 만든 천연동굴에서 여름을 보낸다면 무더위는 한방에 날아간다. 국내에는 석회동굴과 용암동굴을 포함해 크고 작은 동굴이 2천여 개나 된다. 동

굴은 섭씨 10~15도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다. 그 중에서도 단양의 고수동굴과 삼척의 환선굴은 여름철의 가장 인기 있는 동굴 명소다. 특히 삼척의 환선굴은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석회동굴이다.

하마가 입을 벌린 것처럼 환선굴의 입구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다. 덕항산 중턱인 해발 500미터에 위치한 환선굴(천연기념물 178호)에 들어서는 순간 한여름인데도 입김이 나오고 표 받는 사람은 두꺼운 겨울 점퍼를 입고 있을 정도다. 단양의 고수동굴이 여성처럼 아기자기하다면 환선굴은 웅장하고 힘이 넘치는 남성적 동굴이라 할 수 있다. 생성물이 그리 정교하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환선굴에 전해오는 전설과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생성물이 있어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환선굴에 내려오는 전설은 크게 두 가지로 모두 '환선(幻仙)'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 "먼 옛날 대이리 마을 촛대바위 근처에 아름다운 한 여인이 나타나 폭포물에 목욕을 하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을 쫓아가자 지금의 환선굴 근처에서 커다란 바위들이 쏟아져 나오고 여인은 흔적도 없이 지취를 감췄다"고 한다. 그 후 사람들은 이 여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환생한 것이라 생각해 바위가 나온 곳을 '환선굴'이라고 했다. 또다른 이야기는 "한 스님이 도를 깨우치기 위해 동굴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들어간 모습을 봤지만 나온 모습을 보지 못해 이 스님을 '환선'이라 불렀고, 스님이 잤고 다녔던 지팡이를 산신당 앞에 꽂아 두었는데 거기서 지금의 엄나무가 자라났다"고 한다.

현재 굴 안에는 환선 스님이 기거하던 온돌터와 아궁이가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인형으로 그의 모습을 재현해놓았다. 환선굴 내부는 연중 11도의 기온을 유지하는데, 중앙 광장의 옥좌대와 동굴 입구의 만리장성, 버섯형 종유석 폭포는 세계 어느 동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생성물들이다.

굴 입구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굴피집, 너와집, 통방아 등 민속자료가 풍부해 주변 일대를 '대이리 군립공원'으로 지정해 가족들이 피서와 더불어 동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북한 개성공단사업 추진현황

남북의 경제적 이익 창출 기대

지난 4월 23일, 개성공단 공장구역 100만평에 대한 부지조성공사가 착수된데 이어 6월 5일에 개성공단 시범단지 약 2만 8천평에 입주하게 될 15개 입주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이제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시범단지 구역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단에 입주시켜 본격 가동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고를 통해 개성공단의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글 · 사진 이강길(개성사업팀 과장)



• 개성공업지구 개발사업 착공식

사업개요 및 의미

개성공업지구는 개성시 봉동리 일원에 조성되며 전체 면적이 2천만평에 이른다. 이 중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면적은 8백만평이며, 대략적으로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1km, 서울로부터 60km, 평양에서부터 160km 정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는 총 2천만평인데 공장구역, 관광구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공장구역 800만평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와 현대아산이 협약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타 공장구역 이외의 구역은 아직 준비단계에 있다. 공장구역은 현재 100만평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2,2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개성공단사업은 금강산사업, 경의선 철도연결사업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경협사업의 큰 '축'을 이루는 중요한 사업이다. 지금까지의 대북투자는 주로 남한에서 자재를 북으로 보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물건을 만드는 위탁가공 형태나 해외 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대북투자 방식에서는 생산품의 납기가 자주 지연되고 제품의 품질관리가 어려운 등 갖가지 부작용들이 속출했다. 또 북측의 인프라 구축이 부족한 상태이고, 이에 따라 물류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등 남측 투자자들이 대북투자를 기피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2000년 8월 현대아산이 북측과 합의를 체결하고, 그 해 11월 '토공'에 사업참여를 요청함에 따라 쌍방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토공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후 2002년 11월 북측이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개성공단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현대아산과의 협약서 변경을 통해 자금조달, 설계·감리, 분양업무는 토공이 맡아 '사업시행자' 역할을 수행하고, 현대아산은 '시공' 업무를 담당하기로 상호역할을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금년 4월 13일에는 북측과 개성공단사업의 중요 현안이었던 토지임차료에 대한 합의를 완료하고, 지난 23일 본격적으로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경쟁력 있는 여건조성 &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

토공은 적정 분양가 선정을 통해 개성공단의 국제적 경쟁력을 배양하고자, 국내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감안하여 15만원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였다. 또한 토공은 목표단가로 공단부지를 공급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협의를 거쳐 개성공단내 소요되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는 것에 상응한 북측의 조치를 요구하여 합의에 도출하였다. 이번 시범단지 공장용지 분양단가를 평당 149천원에 공급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2003년 8월 20일에는, 남북 당국은 투자 보장, 이종과세 방지, 상사 분쟁해결 절차, 청산결제 합의를 체결하여 법·제도적으로 개성공단에 입주기업들의 자유로운 기



• 시범 개발단지 전경

업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남한 주민의 신변 안전사항이 포함된 개성공업지구 통합합의를 비롯해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해당 발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부동산 규정을 제외한 노동, 세무, 출입체류 등 개성공업지구 10개 하위규정에 대해서도 이미 협의를 마쳤고 관련규정의 공포가 완료된 상태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사항이 완비될 경우 입주기업이 보다 더 안정적인 투자환경에서 기업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부지조성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03년 11월 북측과 개성공업지구 건설을 위한 '개성공업지구개발사무소' 설치 합의서를 체결하고, 당국으로부터 '토공'의 개발사무소 설치 승인을 받아 '03년 12월에 착공식을 마쳤다. 개발사무소 건축공사는 '04년 1월에 착수하여 금년 3/4분기 중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개발사무소 건축과 공장구역 100만평 부지조성공사를 위해 관련 직원 7명이 개성 현지에 체류하고 있다.

한편, 1단계 100만평 단지조성공사는 '03년 6월 착공식 이후 사업지구계 변경으로 인한 측량 및 토질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과정을 완료하였다. 지난 4월 23일에는 우선적으로 토공사부터 착수하였고, 교량 등 시설물 등은 세부설계 후 7월 중에 착수할 예정이다.

분양 및 입주시기 & 기대효과

토공은 시범단지 입주업체를 이미 지난 6월 5일에 선정하였으며, 본 단지에 입주할 기업은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기업 입주는 공사착공 시점부터 약 3년 후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수요가 적고 자체적으로 폐수처리가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06년부터 조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성공단 본 단지에 입주기업 선정은 이번 시범단지내 분양·입주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추후 별

• 개발사무소 현판식



개성공단

도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 예정인데, 공정성과 투명성에 역점을 뒀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성공단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약 250개 업체가 입주하여 연간 2만2천여 명의 고용인력 창출과 26억불의 생산효과가 예상되므로 이 사업은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남북경협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공단 개발과의 차이점 및 특징은?

근본적인 면에서 개성공단 개발은 국내공단 개발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개성공단사업은 현지의 열악한 인프라 사정 때문에 우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보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북측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북한은 국가가 모든 토지를 소유함에 따라 개성공단내 토지는 개발업자가 50년간의 토지이용권을 취득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 주요한 차이점이다. 한편, 개성공단의 이점도 많다. 지리적 측면에서 개성은 서울에서 60km 정도의 가까운 지점에 자리하며, 인접한 인천공항, 인천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입체적인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어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인건비도 개성공업지구 착공 년도의 최저 임금수준이 월 57.5\$ (약7만원)로서 저렴한 편이다. 토지 공급가격 또한 낮은 편이며, 국내 수도권내 공장용지의 약 1/3 수준인 15만원 정도이며, 현지 노무자와 입주기업가 사이의 의사소통이 수월하다는 점 역시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안전한가?

우리 기업들이 주로 위치하게 될 개성공단 일대는 군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만큼, 북한이 이곳을 개방한다는 것은 북한 최고 핵심부 및 군부가 이번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만난 북한 관계자들로부터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북측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정부와 토공은 개성공단내 입주기업의 투자 안전과 관련하여 남북 당국간의 투자 보장 등 4대 경협합의서의 후속조치 마련, 개성공업지구 통행·통신 등 관련 4개 합의서의 발효, 개성공업지구법 및 관련 하위규정 제정을 통해 입주기업의 투자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이미 마련하였거나 마련 중에 있다. 아울러,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보장과 관련한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거나 수정·보완 중에 있어 입주기업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우리 관계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다.

국내 최초의 건설기계 종합렌탈서비스

(주)헤인 부산렌탈스토어 개설

글 조은아 · 사진 정환정



헤인의 렌탈서비스?

- 헤인은 고객들에게 2년 이내의 최신 장비와 임대시 운휴시간을 최소화하는 양질의 장비만을 제공합니다.
- 헤인은 최신 장비와 함께 최고의 기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헤인은 임대 장비에 대한 최상의 A/S Network을 구축해 문제 발생시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 헤인은 임대 후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RTS PLUS' 구매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본사 임대영업팀으로 문의해주세요.
02)3498-4642~3

지난 6월 10일 경남 양산에서는,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캐터필라 건설기계 종합렌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헤인이 국내 최초로 개소한 "부산렌탈스토어 개설 기념식"이 열렸다. (주)헤인은 고객 여러분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2003년 4월부터 이곳 부산영업본부에서 13대의 장비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양질의 장비 111대와 최고의 장비기사 43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국 각 지역에서 온 고객분들을 비롯한 내외빈 200여명이 함께 하여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보여주었다. (주)헤인 손규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생산코스트 절감과 경쟁력 향상은 기업인들이 추구하는 영원한 숙제다. 그러므로 렌탈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고객들의 헤인에 대한 요구이자 서비스이다. 이에 (주)헤인 부산렌탈스토어는 대·소형 중장비는 물론 제반 기계공구 모두를 취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렌탈스토어로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렌탈스토어 개설을 격려하고자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온 캐터필라 아·태지역 사장 크리스 커프만 씨는 "지난 43년간 캐터필라 장비를 취급해온 헤인은 중고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 및 오랜 경험을 바

탕으로 고객 여러분께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지금 현장에서, 30년 이상 된 캐터필라 장비들이 무리없이 가동되고 있는 것만 봐도 헤인의 서비스를 짐작하고도 남을 만한 일"이라며 헤인에 대한 변치않는 믿음과 깊은 신뢰를 표했다.

이어 국내 최초 렌탈스토어 개설을 알리는 힘찬 팽파레가 울려 퍼지고 내외빈이 함께한 테이프 커팅식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렌탈스토어 현장을 직접 둘러볼 수 있는 '렌탈스토어 투어' 행사가 마련되었는데, 모두들 진지하면서도 기대에 들뜬 표정으로 행사장 곳곳을 차근차근 둘러보았다. 행사장에는 캐터필라

건설기계를 비롯하여 현장 작업장에 필요한 제반 공구까지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어 (주)헤인의 이번 부산렌탈스토어 개설 목적인 '전문/종합렌탈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의 의미를 실감할 수 있다.

이번 부산렌탈스토어를 기점으로, (주)헤인은 최신형 신장비 및 양질의 중고장비를 보유하고, 1년 365일 언제라도 선진화된 종합렌탈서비스로 고객을 찾아갈 것이며, 전국 어디서든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장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향후 거점도시에 렌탈스토어를 지속적으로 설립해나갈 예정이다.

세계적인 엔진 전문업체 퍼킨스 산업용 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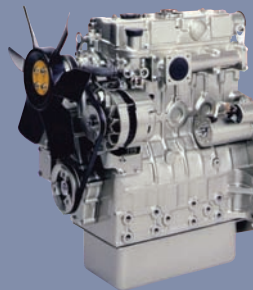
영국의 Peterborough에 소재하고 있는 퍼킨스사는 1932년에 설립된 후 지금까지 약 5백만대의 엔진을 생산하고 있는 세계적인 엔진 전문업체다. 해마다 약 26만대의 엔진을 전세계 160개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보다 더 발전된 새로운 엔진들을 지속적으로 생산 · 공급하고 있다.

글_ (주)헤인 김영주 팀장(퍼킨스 엔진팀)

Perkins 산업용 엔진은 전반적으로 compact한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출력을 낼 수 있으며, 특히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Tier2/EU stage2 배기가스 규제를 만족시키는 친환경적인 동력원으로 500시간의 긴 오일 교환주기, 연비와 소음 측면에서 타 경쟁업체의 엔진보다 우수하여 유지 보수 및 장비 개발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2005년 이후에는 보다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인 Tier3/EU stage3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엔진도 출시될 예정이다.

Engine	배기량 liter	출력	Torque rise	실린더수
400 series	1.1 / 2.2	20hp - 60hp	10% - 20%	3 / 4 기통
800 series	3.3	58hp - 81hp	15% - 20%	4 기통
1000 series	3.3 / 4.4 / 6.0 / 6.6	53hp - 250hp	10% - 30%	3 / 4 / 6 기통

400 Series



각 시리즈별 엔진의 특징

(1) 400 Series

일본의 엔진 전문업체인 Shibaura사와 기술 제휴하여 새로운 Perkins 모델로 개발되어 영국 Perkins 공장에서 생산 · 공급되고 있으며, 다양한 Application이 가능하다. 특히 건설기계, 지게차, 농기계, 발전기 등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하며, 엔진의 사이즈에 비해 고출력과 내구성이 탁월한 것이 장점이다.

High Performance / Low Cost / Compact size

(2) 800 Series

일본의 중공업체인 미쯔비사와 OEM방식으로 일본에서 생산 · 공급되고 있으며, 주로 Off-highway용 Application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500시간 오일 및 필터 교환주기와 1,000시간 연료필터 교환주기로 타사의 엔진보다 상대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며, ECO Fuel filter를 채택하여 보다 미세한 입자도 Filtering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재사용이 가능한 Canister type을 채택하여 필터 교환시 불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최적의 연비 / 1:1 Drive Power Take Off / ECO Plus Fuel filter

(3) 1100 Series

Perkins의 고유 모델로서 3.3리터(3기통), 4.4리터(4기통), 6.0리터(6기통)의 다양한 Line-up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계식 및 전자식 Governor를 채택하여 보다 다양한 고객의 요구 사양을 만족시키고 있다. 또한 ECO Fuel filter를 채택하여 불필요한 비용 및 폐기물을 줄일 수 있으며, Balancer를 Option으로 개발하여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여 보다 정숙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현재 규제하고 있는 Tier2/EU stage2와 동일한 엔진의 Feature로 향후 Tier3/EU stage3 배기가스 규제까지 맞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차세대 장비 개발시에도 별도의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Low Smoke / Low Noise / Improved fuel economy / ECO Plus fuel filter

(4) TIPPS(The Integrated Parts and Service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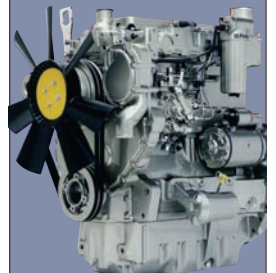
엔진서비스 요구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된 유지보수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통합된 부품 및 서비스지원 시스템인 TIPPS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 퍼킨스 엔진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02-3498-4673) 나용표 차장 / 부품(02-3498-4667) 김두식 과장 / 서비스(02-3498-4587) 최성규 사원

800 Series



1100 Series



TIPPS





홈플러스 물류운송은 (주)헤인 용하리인히!

삼성테스코 목천물류서비스센터

충남 목천에 위치한 합인점 삼성테스코의 물류센터는 지난 4월 설립 당시 국내의 유통산업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곳이다. 이 물류센터는 대지면적 4만 5000평에 건물면적 1만 6600평으로 건물 길이만 329m에 달하는 동양 최대의 시설규모다. 그리고, 이곳 물류 운송은 '창고용 물류장비의 대명사'로 불리는 (주)헤인 용하리인히 장비가 소화해내고 있다.

글 조은아 · 사진 이성규



• 왼쪽부터 삼성테스코 목천물류서비스센터 허성기 과장과 정봉진 주임, 그리고 헤인 산업장비 영업팀 이진호 과장

삼성물산과 영국 TESCO가 합작해 2003년 4월에 공식 오픈한 '홈플러스'의 국내 물류센터, 이곳에서 홈플러스 전국 매장 물량이 일괄처리된다. 한달에 1,200만 박스를 처리하는 물류센터의 정확도는 99.9%, 이 통합물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삼성테스코와 협력업체가 절약할 수 있는 물류비는 연간 640억원 이상이며 이는 최소 5%의 원가하락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니, '물류센터의 힘'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 물류센터에서 가동되는 장비들이 어떤 브랜드인가 하는 것도 일의 효율성 면에서 볼 때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터이다. 이곳에는, 40여년간 전동물류장비업체의 역사로 불리우는 독일 용하리인히 장비가 들어와 있다. 적재물의 하역 및 운반에 필요한 필수 장비인 전동파렛트트럭 62대, 리치트럭 20대, 핸드파렛트 55대 등 총 137대의 장비들이 (주)헤인을 통해 소개되었으며, 헤인과 삼성테스코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현장에서 장비는 하나의 소모품입니다.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하면 초기 투자비가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우수한 장비를 써야죠. 독일 용하리인히 장비야 좋은 거 다 알죠. 처음부터 용하리인히를 써왔으니까 성능이나 배터리 호환성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계속 써야지 타사 장비로 바꾸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개점 이래 지금까지 사용해왔는데 장비 성능이나 안정성 면에서 특별히 문제될 일이 없었다며, 기분 좋은 칭찬은 접어두고 그야말로 솔직한 사용소감 몇 마디를 전하는 삼성테스코 목천물류서비스센터 설비관리 허성기 과장과 Material Handling Equipment 정봉진 주임. 그러나 장비에 문외한인 내게 그들의 담백한 말은 어떤 과장된 칭찬보다 더

마음에 와닿는 면이 있었다.

"곧 추가 장비 구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내년 초 경남 합안에 오픈하는 물류센터에 100% (주)헤인 용하리인히 장비가 투입될 것입니다."

물류센터 창고 안에서 우연히 만난 장비트레이너, 다양한 종류의 장비를 접해온 그는 "독일 장비는 안전성과 견고함에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용하리인히 리치트럭은 중심축이 중앙에 있어 사고위험이 적을 뿐 아니라 높은 위치에 쌓여있는 물건을 하역할 때 충격을 조절하는 충격조절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안전성 면에서 탁월하다."고 귀띔해줬다.

두 회사의 첫 인연의 고리는 삼성테스코의 배본직 차장과 헤인의 김중서 과장이 만들었고, 재작년 2월에 산업장비영업팀 이진호 과장이 그 바턴을 이어받았다. 이 과장은 삼성테스코는 '우리팀의 가장 큰 고객'이라며 자랑한다. 그래서 삼성테스코라면 작은 일에도 더 관심이 가며 그 방문횟수만큼 사내 식당에서 한술밥을 나눠먹는 날도 늘고 있다고.

삼성테스코 허성기 과장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장비다 보니 AS장비기간이 끝난 후 장비 유지 및 보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장비 수요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단기간 수요가 나는 때도 있으니 이런 상황을 고려한 임대장비 서비스를 부탁했다. 이에 (주)헤인 이진호 과장은 "임대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대한 요구 사항에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꽤 오랜 시간동안 삼성테스코 허 과장과 정 주임은, 오늘 물량이 처리되고 있는 물류센터 곳곳을 돌며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격식을 차리지 않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



• 왼쪽부터 헤인 동해지점 이휘우 지점장과 국제종합기계 지경중 사장

헤인과 우리는 윈·윈 파트너 국제종합기계

푸른 바다의 청명함이 늘 그리운 동해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건설기계 정비 및 유압기계 제작을 맡아온 동해의 오랜 터줏대감 '국제종합기계' 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장비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주)헤인 동해지점이 '동해의 건설중장비업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는 것이다. 지금 동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입소문이 번지고 있는 현장을 찾았다.

글 조은아 · 사진 이성규



• 헤인 삼척영일소 장진우 소장과 함께

동해시 구호동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국제종합기계는 강릉, 속초, 삼척, 태백시 일대의 건설기계장비 서비스를 13년째 담당해오고 있다. 연간 매출액이 7억에 달하며 6명의 전문 정비사를 보유하고 있는 꽤 규모 있는 회사이다. 그런데, 이 국제종합기계 현장에 지난 5월 11일부터 헤인의 현판이 함께하게 된 사연을 들어보자.

“국내의 여러 장비를 다루고 있지만 캐터필라 장비만큼 욕심 나는 것은 없어요. 과연 그 명성대로 순정부품만 써주면 장비 보수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기술로 앞서가는 캐터필라 장비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많은 고객들이 캐터필라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도 간파할 수 없습니다. 오래 전부터 캐터필라 장비의 정비를 전문적으로 담당해 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차에 헤인 동해지점의 이휘우 지점장을 만나게 된 거죠.”

엔지니어 출신인 국제종합기계 대표 지경중 사장은 건설기계장비 정비에 관련한 베테랑이고, 그 자신이 해외에서 캐터필라 장비를 취급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헤인과 인연을 맺게 된 것. 즉, 서비스 정비 기간이 끝난 캐터필라 장비에 대한 정비 서비스를 국제종합기계가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로써 동해에 있는 헤인 고객들은 굳이 천안공장에 장비를 입고할 필요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비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동해지점의 손길이 미처 미치지 못했던 구석구석까지 찾아갈 생각입니다. 캐터필라 장비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영업 및 판매를 배가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마침 국제종합기계도 우리 쪽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헤인의 전문적인 기술 교육 및 정보 지원, 장비 정비에 필요한 제반 공구들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만큼 더없이 좋은 협력관계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경중 사장의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그 뜻이 ‘고객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라는 헤인의 정신과 통한다고 봅니다.”

현재 이곳 동해지역에 들어온 캐터필라 장비는 500여 대, 개인고객은 230여 명으로 지역 특성상 앞으로의 잠재고객 및 장비 수요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오랜 기간동안 건설기계장비의 정비 및 서비스를 제공해온 국제종합기계는 대지 873평, 건물 250평이나 되는 현장시설에 기술력도 갖추고 있으며 성실한 서비스로 지역 고객들에게 좋은 호감을 사고 있다. 그러므로 헤인과 국제종합기계의 앞으로의 전망은 밝을 수밖에 없다.

헤인은 오는 6월 17일부터~18일까지 1박 2일 동안 국제종합기계의 정비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비관련 교육을 시작으로, 서로의 돈독한 협력체제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각 회사의 정비서비스 전문가들은 이제 좀 더 발빠르게 현장 곳곳의 고객들을 찾아나설 참이다.



동해지역 일대를 ‘노랑게’ 물들이겠다는 이휘우 지점장의 힘찬 포부와, 캐터필라 장비에 관련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전문가가 되겠다는 지경중 사장의 당당한 욕심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두 회사의 성장일로에 큰 원동력이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새롭게 변화한 잉가솔랜드 “중고압 콤프레서 (VHP750WCAT)” 출시

(주)헤인은 콤프레서의 대명사인 잉가솔랜드사에서 새롭게 출시한 중고압 콤프레서의 국내 판매를 시작하였다. 국내에 200psi(14Kg/cm²) 장비로서는 유일한 잉가솔랜드 VHP750WCAT 모델은 종전 캐터필러 3306엔진을 대신하여 배기가스 기준인 미국 EPA Tire II 기준과 유럽 EU Stage II 를 엄격히 준수하는 연료절감형 엔진인 캐터필러 C-9엔진으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세계적 추세인 환경보호와 신뢰성 있고 견고한 캐터필러 엔진의 진면목을 보여주리라 기대된다. 또한 고장이 잦고 습기 및 충격에 약한 디지털 액정방식을 가급적 지양하고 장비의 상태를 다른 조작 없이 정확히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컨트롤 패널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높은 최저 지상고는 어떠한 악조건의 현장에서라도 장비의 손상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주)헤인 천안 정비공장, “오염관리 4 Star (★)” 인증

(주)헤인은 캐터필라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엄격한 기준의 오염관리 기준을 충족하여 캐터필라사로부터 “오염관리 4 Star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건설 중장비의 고장 원인은 75~85% 정도가 장비의 오염에서 비롯되며, 주로 장비 가동시 또는 정비/수리시 오염이 발생되고 있다. 캐터필라사는 이러한 오염의 근본원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의 오염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캐터필라사의 오염관리 인증은 Star(★)의 수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Star(★)가 많을수록 오염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주)헤인은 청결한 부품 및 오일 관리, 작업장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장비가 오염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캐터필라사의 오염관리 기준을 90~94%를 달성하였다.



Product Link 서비스 개시

(주)헤인은 캐터필라 장비의 상태를 위성을 통하여 인터넷상에서 모니터 할 수 있도록 개발된 Product Link (PL201)를 헤인 임대영업팀에서 운영 중인 365BLI에 최초 장착하여 2004년 4월 29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Product Link 서비스는 위성을 통하여 장비의 위치, 가동시간, 장비의 진단상태, 연료소비량 및 장비에 관한 상세정보 등을 인터넷상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캐터필라 해상엔진 Spot Demo 실시

(주)헤인 해상엔진팀에서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낚시배 선주들을 대상으로 “캐터필라 해상엔진 이동 전시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이동 전시회는 완도 여객선터미널과 여수 어민회관 등에서 지역의 어업인들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시된 캐터필라 해상엔진은 C18 1000HP AT 2300 RPM과 C18 680HP AT 1800RPM 두 대였으며, 고객들은 1000HP엔진에 대한 할부판매 조건과 엔진 성능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주)헤인 해상엔진팀은 이러한 형태의 고객을 찾아다니는 이동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어업인들의 관심을 유도할 것이다.



가스열병합발전, 주요 에너지시스템으로 자리매김

(주)헤인은 캐터필라 발전기 판매에서 더 나아가 종합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시스템의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열병합발전시스템은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배출가스를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인 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주)헤인은 150kW~3,000kW급의 캐터필라 가스엔진 열병합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쌍용자원개발 동해사업소, “Production Study” 실시

(주)헤인은 채광 현장의 생산성 관련 데이터를 일정기간 채집하여 분석 후, 작업현장의 광산운영 상황과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CAT 장비를 운영하는 고객이 장비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Production Study를 6월 14일 ~ 18일까지 5일간 “쌍용자원개발 동해사업소”에서 실시하였다. (주)헤인과 캐터필라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Production Study는 작업 현장에서 발파된 원석을 굴삭기로 상차하기까지의 일련의 작업을 4동작으로 나누어 측정하며, 이를 통해 추출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느 작업에서 시간이 로스트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측정하여 현장의 총 생산성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개선점도 파악하게 된다. (주)헤인은 향후 지속적으로 국내 대형 광산에서 이와 같은 Production Study를 실시하여 고객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독자 나눔터

내 글이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는 (주)헤인 사보에 실린다는 것에 신이 나네요. 내가 느꼈던 이런 신바람이 힘든 사업장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IMF시절보다 더 어려운 요즘 힘든 사업장이 많을 텐데, 나와 같이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양주시 옥정동 김현아

‘별 내용 있겠어’ 하며 펼쳐 들었는데 바로 내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두께의 책자 한 권에 알찬 내용을 담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고, 특히 <멋과 맛>, <업계 동향>, <안전 현장 관리> 등 읽기에 맛갈스런 내용을 선정한 것이 돋보였습니다. 끝으로 헤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주)대한특수가스 Facility Team 정승환

부산 AMD의 한 곳으로서 부산영업본부와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주고 받습니다. 언제나 함께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1층의 부품 직원들... 그래서인지 ‘헤인’은 친근한 느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당신들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하루를 즐겁게 만듭니다.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주)동아디젤 조정래 이사

맛집 소개시 너무 먼 곳 말고, 서울 근교에서 가깝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소개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 참, 세상 돌보기도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 몸짱도 좋지만 건강 먼저 생각해야 하겠더라고요!!!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인천정유 생산지원팀 홍무 정주희

중장비 책자라면 기계적인 면만 부각되어 다른 일반 책자에 비해 자칫 무거운 느낌을 독자에게 줄 수 있을 듯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멋과 맛>코너는 내용과 디자인 모두 ‘짱’입니다. 중장비계의 짱, 헤인 짱!!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제일건설기계조합 조미희

임직원 소식

입 사 를 축 하 합 니 다

해상엔진팀 최민영

정비기술팀 임채범

정비기술팀 장형순

탄 생 을 축 하 합 니 다

2004.3.4 제천지점 김한철대리 득녀

2004.3.12 제천지점 이석현주임 득녀

2004.3.16 중고장비영업팀 전광모사원 득녀

2004.3.16 전산팀 김한순과장 득녀

결 혼 을 축 하 합 니 다

대구지점 황은선사원

IR장비영업팀 김혁수주임

부산영업본부 신병식주임

IR장비영업팀 윤준호대리

육상엔진팀 김일래사원



엽서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첨되신 분에게는 캐터필라 마크가 새겨진 '나이프와 전등세트'를 드립니다.

문의 : 02-3498-4524 이승일 과장(silee@haein.com)

비즈니스 심리학

기쁨을 두려워하는 사람

글 하지현, 『통쾌한 비즈니스 심리학』 저자



지원씨가 여러 달 동안 공을 들인 거래처의 계약을 따냈다. 지원씨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잘 알고 있던 부서 사람들은 축하의 박수를 날리며 환호를 했다. 그런데 막상 지원씨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뜨악해했다.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 별 것도 아닌 건데.”
“무슨 소리야, 지원씨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한 거 우리가 다 아는데... 게다가 이번 건 하나로 이번 분기 매출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계약서 사인해봐야 알죠. 너무들 좋아하시니까 괜히 이상하네요.” “기뻐지 않아요?” “누가 좋지 않대요? 그냥 그렇게까지 호들갑 떨 일은 아니란 거죠.”

그런 지원씨의 말에 분위기는 썰렁해져버렸다. 원래 부서가 한 톱 내기로 했었지만 회식도 취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마땅히 즐거워해야 할 일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지원씨를 이해하기 힘들다. 다른 사람의 기쁨 일에도 그리 즐거움을 표현하지 않고 괜히 초를 치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곤 하는 지원씨는, 기쁨을 모르는 감정이 메마른 사람일까?

지원씨와 같은 사람은 기쁨 감정을 느끼는 것을 두려워한다. 아마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을 것이다. 생일을 앞두고 뭔가 좋은 선물을 받을 줄 알고 잔뜩 기대를 했었는데 식구들이 무심하게 지나쳐버리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선물을 받았을 때 느꼈던 큰 좌절과 실망감.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되다 보면 도리어 ‘괜한 기대를 했다가는 실망만 할 뿐’이라는 생각에 애써 좋은 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억누르는 습관이 나도 모르게 생긴다. 지원씨는 그런 습관이 과도한 경우다.

‘삼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가’ 만에 하나 일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 느끼게 될 수치심을 두려워해서 삼페인을 마땅히 터뜨려 축하를 들어야 할 때에도 그러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기쁨에도 동참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기쁨을 느끼는 것에 대해 항상 일말의 불안감을 갖는다. 그러다보니 그와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위축된 감정이 전염되는 걸 느끼게 된다.

지원씨는 기쁨을 느끼고 표현해도 절대 ‘내 손 안의 사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자신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 정말 기분 좋아요. 열심히 일 한 보람이 나네!”
“밥값 좀 제대로 했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리라는 생각이 먼저 들며 쓸데없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같고 유치할 따름이라고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연습을 하다보면 조금씩 익숙해질 것이다. 기쁠 때 기뻐하고 즐길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기쁨’이라는 인간의 가장 커다란 즐거움을 되찾아 온전한 나를 만 들어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